집·도시·일자리…건축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건축이 바꾼다

박인석 지음

높게 세운 방음벽과 담장이 없는 열린 아파트 단지,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동네, 주민들의 '공적 감수성'(공적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도록 하는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향)을 자극하고 키우는 공공 건축물…. 하지만 현실속 도시공간은 상상과 달리 삭막하고, 획일적이다. 도시와 건축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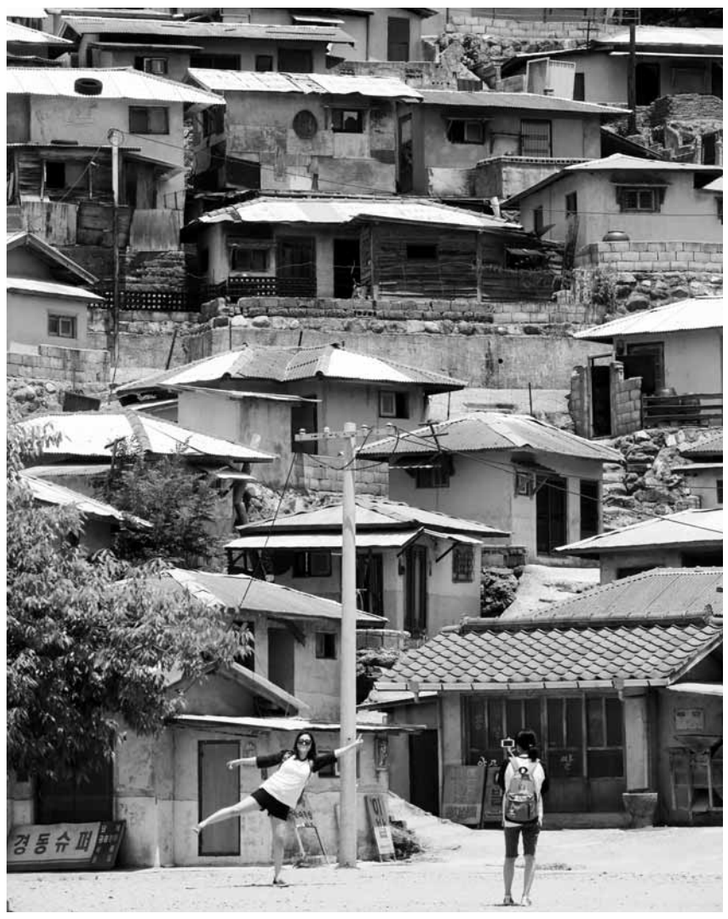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가 최근 펴낸 '건축이 바꾼다'는 한국사회에서 건축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 건축행정의 큰 틀에서 접근해 도시공간과 도시재생, 학교건축, 동네 환경, 재개발 문제로 세밀하게 파고들어간다.

저자는 1부 '건축의 시대'와 2부 '설계 없는 사회'에서 건축을 건설로 잘못 취급하고 있는 정책과 행정,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3부 '칸막이 행정'에서 도시행정과 건축행정의 칸막이가 빚어내는 문제를 다룬다. 또 4부 '설계시장'에서 비합리적인 설계시장과 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5부 '살기 좋은 동네'에서 골목길 주차전쟁 등 도시공간 문제들을 들여다보며, 6부 '건축의 지향, 건축의 전선'에서 건축과 도시공간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한국사회는 좋은 건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또는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회"라고 역설한다. 짓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계획'(planning)과 '설계'(design)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 '계획'만 있고 '설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총건축 생산의 20%를 차지함에도 소규모 공공 건축물인 파출소, 우체국은 틀에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하게 됐다.

저자는 '건축'이 아닌 '건설'적 방식의 법률과 제도, 행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이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비를 깎자 하고, 아예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하급 시장'마저 존재한다. 어린이 놀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1979~1990년 시행되던 놀이시설 종류와 규격까지 세세하게 규제한 설치기준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똑같은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건축행정의 '민낯'과 함께 건축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마을을 전면 철거한 후 고층 아파트단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중계동 산 104번지) 재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이 녹아있는 마을모습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한국 사회는 '건축의 가치, 건축적 방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회'이다. 달동네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던 재개발 사업이 주민 삶의 자취를 살리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순천시 조례동 '드라마 촬영장'내 달동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저자는 '건축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한다. "건축은 동네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지만, 그 건축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이다."

〈도서출판 마티·2만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책읽기는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

이동진 지음

영화평론가이자 작가인 이동진은 책 팟캐스트 부동의 1위 '빨간책방'의 방송 진행자이기도 하다. 1만7000권의 책을 갖고 있는 장서가 답게 책 읽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설파하는 애서가다.

'과연, 1만7000권이라는 책을 다 읽었을까?' 많은 청취자와 독자들은 궁금해한다. 매일 1권씩의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동진의 독서법을 담은 책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은 그런 점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책 제목처럼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읽어 내려가는 것만이 행복한 독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책의 시작부터 자신의 서재에 있는 책 중에 다 읽은 책도 상당하지만 서문만 읽은 책도 있고 구입 후 한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도 있음을 고백한다. 그렇지만 그는 그 역시 '독서'라고 생각한다. 책을 사는 것, 서문만 읽는 것, 부분 부분만 찾아 읽는, 그 모든 것이 독서라는 얘기다.

책은 3부로 나눠져 있다. 1부 '생각_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는 작가가 책을 읽는 방법과 책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좋아하는 독서 장소,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읽는 법 등 흥미로운 비법을 알려준다.

2부 '대화_읽었고, 읽고, 읽을 것이다'에서는 '이동진의 빨간책방'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씨네21' 이다혜 기자와의 대화를 담고 있다. 평소 듣지 못했던 작가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이나 학창시절 독서클럽을 조직했던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펼쳐진다. 마지막 3부 '목록_이동진 추천도서 500'은 작가가 읽어온 책들 중 권하고 싶은 500권을 가려 뽑은 리스트다.

"누군가가 '이동진 씨, 왜 책을 읽으세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제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담·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詩누이=시를 쓸 때는 신미나, 그림을 그릴 때는 싱고가 그리고 쓴 웹툰 에세이. 일상의 고민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따뜻하게 그려진 싱고의 시 웹툰은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詩누이'에는 시인 자신의 캐릭터인 '싱고', 그녀와 십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인간 나이 69세의 고양이 '이응옹'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서로 툭탁거리면서도 일상의 고락을 함께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삶의 소중함을 알아간다. 〈창비·1만4000원〉

▲조선 왕릉, 그 뒤안길을 걷는다=조선 왕조의 무덤은 모두 119기로 능(陵)이 42기, 원(園)이 13기, 묘(墓)가 64기다. 저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 왕릉 40기와 원 13기, 묘 16기, 몇몇 원찰을 직접 답사한 후 조선 왕실 가계도를 바탕으로 각 능의 주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풀어냈다. 왕릉 답사 전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게 목적인 만큼 전주 이씨의 후손이기도 한 저자가 직접 답사한 경험을 최대한 살렸다. 〈재승출판·2만2000원〉

▲비밀이야의 맛있는 스페인=여행 중 하루쯤은 근사한 다이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테마여행 가이드북. 14년째 맛집 ·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저자가 다섯 번의 스페인 미식 여행길에 방문했던 레스토랑 중 꼭 가볼 만한 곳을 엄선해 소개한다. 스페인 미식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역, 파에야의 본고장인 발렌시아와 관광의 중심지인 마드리드 등 지역별로 다양한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BR미디어·1만6000원〉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 박정희를 쏜 김재규. 그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 판결이 과연 옳았는지에 관한 논란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저자가 170일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10·26의 실체를 조명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생생한 법정 진술을 비롯해 공판 조서, 수사 기록, 언론 보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 〈김영사·2만2000원〉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26년차 베테랑 방송기자인 저자가 수년간 노동과 임금, 일자리에 관한 TV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취재한 우리 사회 임금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고발하고 있다. 비경제학자의 입장,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장 곳곳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루비박스·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 삼촌은 자신감 대왕=자신감, 신뢰, 배려, 협동, 정의 다섯 가지 가치를 테마로 한 초등 저학년용 가치동화 시리즈. 1권 '우리 삼촌은 자신감 대왕'에서는 조카의 눈으로 본 삼촌 이야기를 세 편의 에피소드로 들려준다. 자기만의 시야를 확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만 키워 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겨레아이들·9500원〉

▲과학탐험대 신기한 스쿨버스=1990년대 출간 이래, 전 세계 1억 부, 국내 1000만 부가 팔린 과학 그림책 시리즈 '신기한 스쿨버스'를 뒤이은 과학 동화 시리즈가 나왔다. 인체, 땅속, 바닷속으로 과학 현장 학습을 떠나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모험을 담고 있다. 첫번째는 '으악, 병균이 너무 싫어!'다. 〈비룡소·9500원〉

▲올해 일곱 살=중국 아동문학. '올해 일곱 살', '외로울 때 친구', '동굴 탐험'까지 세 편의 중단편 소설을 모은 작품집. 학교를 배경으로 중국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아이와 어른,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등 보편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진지한 고민을 시도한다.

〈보림·1만1000원〉

▲코끼리의 기억=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뒤덮더니 폭탄을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연기처럼 없어졌다. 아빠와 함께 국경선 밖으로 탈출했지만 결국 따로 살게 된다. 전쟁이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은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단순히 전쟁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스푼북·1만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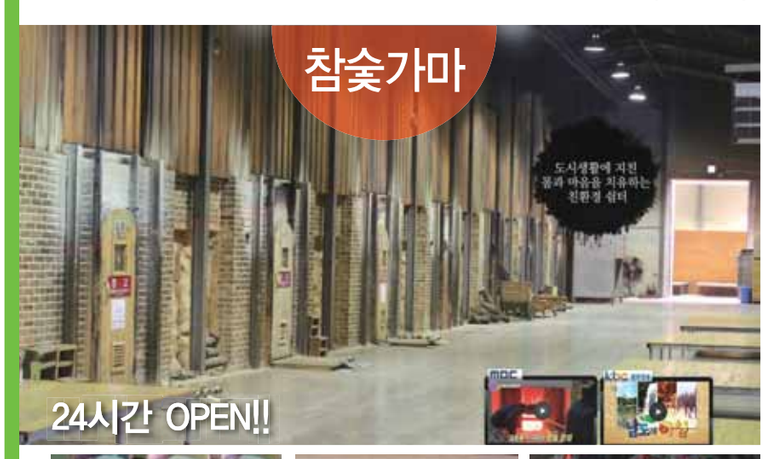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